# 학교 예방접종 요건



## 학교 예방접종 요건이 있는 이유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학교를 다니려면 아동 예방접종 일정에 포함된 일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학교 예방접종 요건은 175년 넘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학교 예방접종 의무화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55년으로, 당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학교 입학 시 천연두 예방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1980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에서 예방접종 요건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질병의 집단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예방접종 요건은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콜로라도주에서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무엇일까요?

### 학교(K~12학년) 필수 예방접종

- B형 간염(HepB)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 비활성화된 소아마비 바이러스(IPV)*
- 홍역, 볼거리, 풍진(MMR)*
- 수두(수두)*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

*4~6세 아동은 유치원 입학 전에 *DTaP, IPV, MMR,* 수두 백신의 최종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2025~2026*학년도에는 *6*학년 진학 전에 *Tdap* 백신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6~12*학년 학생은 *Tdap* 백신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 보육시설 필수 예방접종

- B형 간염(HepB)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Hib)
- 비활성화된 소아마비 바이러스(IPV)*
- 폐렴구균 접합체(PCV)
- 홍역, 볼거리, 풍진(MMR)*
- 수두(수두)*

*4~6세 아동은 유치원 입학 전에 *DTaP, IPV, MMR,* 수두 백신의 최종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cdphe.colorado.gov/immunization/requirements-for-school-entry**

## 자녀의 예방접종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콜로라도주 전역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보험은 예방접종 비용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보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아동은 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제공기관 찾기:
**cdphe.colorado.gov/immunizations/get-vaccinated**

##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phe.colorado.gov/immunization/copy-of-records**

# 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가 다닐 학교나 보육시설을 결정할 때 예방접종률을 비롯한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학생과 교직원을 질병의 확산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데, 이를 '집단면역'이라고 합니다. 홍역의 경우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인구의 95%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이 많은 학교일수록 질병이 집단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이 집단 발생하면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 이유(예: 암 치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러한 아동은 질병에 감염되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아동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예방접종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예방접종률이 충분히 높은 학교나 보육시설만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콜로라도주의 예방접종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 질병 | 콜로라도주 유치원생의 평균 예방접종률 |
|---|---|
| 홍역 | 87.7%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 86.9% |
| 소아마비 | 87.3% |
| 수두 (수두) | 86.7% |

최근 콜로라도주에서는 홍역과 백일해가 집단 발생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할 만큼 예방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주의 예방접종률 확인: **cdphe.colorado.gov/immunization/school-and-child-care-data**

# 예방접종 요건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나요?

각 주에서는 자녀가 예방접종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학교나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는 학교에서 질병이 집단 발생할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에서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를 허용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개인적 신념 및/또는 종교적 사유에 따른 면제도 허용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방접종으로 예방하는 질병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중 많은 질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기로 선택하면 아동이 해당 질병에 걸리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예방접종률이 낮아지면 질병이 집단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아동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자녀뿐만 아니라 급우,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모두를 보호하세요!

IMMUNIZE COLORADO

IMMUNIZE FOR GOOD